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Process of Fashion Changes

-Focusing on the Neoclassic Style-

Ham, Youn-Jam* · Kim, Min-Ja

Dong-Eui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its general definition, style is a fashion recognized to be of a specific period. Despite the disposable concept implied by 'specific period', a style is called by the same name when reappearing in a different period. At this point, the question is this: how can styles in different periods be defined the same? In the opinion of Broadsky's 'linked solution' which suggest to understand artifacts as diachronic, principles that can be revived in many time periods are 'types' rather than 'styles'. In other words, when a style called 'A' is revived in a different period, 'A' contains characteristics reflecting changes in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the same aesthetic characteristics as the original 'A' style. The former is discontinuity of the style and the latter is continuity of the 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ing a specific style in different ways through examining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neoclassic style in early twentieth century fashion modernism. An attempt at understanding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 fashion style is an attempt at understanding fashion changes as a 'linked solution', as suggested by Broadsk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early twentieth century fashion, the sociocultural contexts reappearing in the neoclassic type can be seen as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women's social activity, change of sexual identity, spread of mass society and classless tastes, and mass production by machine. The continuity of eighteenth to nineteenth century neoclassic style

is considered as presentation of anatomical truth, clarity of geometric form, moderation of unnecessary decoration, and expression of clothing structure. Early twentieth century, women's dresses were simple and put value on the intrinsic nature of the human body. On the other hand, discontinuity of the style is found in the imitation of men's classic tailored suits and standardization of sizes and styles. These are considered to reflect such early twentieth century sociocultural contexts as equality of the sexes and mechanical aesthetics.

Through this study,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neoclassic style in early twentieth century modernism are found in strict form in various expressions reflecting ideas, social structure, and technology. In conclusion, continuity of the style is the characteristics which make to classify fashion by the neoclassic type and discontinuity of the style is a way to adopt sociocultural contexts and make appropriate to its time. Discontinuity can be broadened in the cases of spanning periods and regions. Therefore, through investigating various types of the neoclassic style in different periods and regions, the process of change of a style should be understood thoroughly.

패션에 나타난 양식변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고전주의 양식을 중심으로-

함연자* · 김민자

동의대학교* · 서울대학교

양식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양식은 즉시 특정한 시대의 것으로 인식할 수 유행이다. 그러나 양식이 ‘시대’라는 개념이 함축된 일회적인 것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타났던 양식이 다른 시대에 재현될 때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 서로 다른 시대에 나타난 양식을 과연 같은 양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Broadsky의 ‘연결된 해결’ 개념에 의하면 여러 시대에 되풀이 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은 ‘양식’이기보다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A’라는 양식이 다른 시대에 재개되어 나타날 때는 ‘A’양식의 미적 가치와 일치하는 연속성의 특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불연속성의 특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Summerson이 건축에서 비교했던 바와 같이 20세기 초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함으로써 특정한 양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지니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패션에 나타난 양식변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살피는 것은 패션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지니며 변화하는 연속체의 한 부분으로 보고자 하는 동적·통시적 측면의 고찰로서, 전통과 연결된 다양화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현대패션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하며 미래패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초 모더니즘 패션에서 신고전주의가 재현되어 대두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성개념의 변화, 대중사회

의 대두와 계급 구분 없는 취향의 공유가 가능한 사회적 체계의 확산, 그리고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등으로 고찰되었으며, 18~19세기에 나타났던 신고전주의의 미적 가치와 일치하는 연속성의 특성은 인체의 사실성 재현, 기하학적인 선적 명료함, 장식의 배제와 구조의 진실한 표현 등에서 나타난다. 신고전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여성의 복식은 이전 시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단순화되고 여성 인체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불연속성의 특성은 여성의 교육과 고용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점차 증가되고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를 모방한 형태와 발달된 기계 기술의 영향으로 대두된 ‘기계미학’을 배경으로 나타난 표준화된 규격과 최소로 표현된 스타일에서 발견된다.

이상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는 18~19세기 신고전주의의 양식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20세기 초의 이념, 사회체계, 기술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패션 양식의 변화에서 연속성은 신고전주의라는 유형으로서의 양식을 다른 유형과 구별하여 파악하게 하는 특징이며, 불연속성은 변화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양식을 ‘연결된 해결’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산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 또는 공간의 확장에 따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면 더욱 다양한 신고전주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사례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